

지속적인 문화유산과 저항: 존 스타인벡과 T. 코라게션 보일

황 치 북
(전주대학교)

Hwang, Cheebok. "A Continuous Cultural Heritage and Protest: John Steinbeck and T. Coraghessan Boyl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1 (2018): 153-174. This paper aim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and T. Coraghessan Boyle's *The Tortilla Curtain* in order to discuss the purpose and limitations of social protest novels. In the 1930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e story of the Joads, a representative of the migrant workers who dreamed of moving to California, was continued in Boyle's work to convey similar events happening to immigrant workers in modern times. To describe similar events that have occurred to immigrant workers in the past, I describe not only the difficulties of illegal immigrants through Boyle's characters, the Rincons but also the exaggerated privilege of white people through the Mossbachers in contemporary California. Like Steinbeck, Boyle reveals their harrowing realities. Both Steinbeck and Boyle were criticized for their publications, but in their own times, Steinbeck and Boyle carried out their ultimate goal of social protest novels as an appeal for social change even if there was no such solution. (Jeonju University)

Key Words: *The Grapes of Wrath*, *The Tortilla Curtain*, American dream, Social Protest Novel, (Illegal) Immigrant Workers

I. 들어가는 말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취임 이래 얼마 전 보도된 멕시코 간의 국경에 장벽 설치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불법체류자

추방이 현실화되며 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마저도 폐지와 유예를 놓고 협상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와 T. 코라게션 보일(Thomas Coraghessan Boyle)의 『또르티야 커튼』(*The Tortilla Curtain*)의 비교연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1948년에 뉴욕에서 출생한 보일은 아직까지는 국내 독자들에게는 약간 생소한 작가이기기는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작품 활동을 하였고, 지금까지 24권의 장편과 100여 편이 넘는 단편소설을 출판하였으며, 오 헨리 단편소설상과 펜포크너 상(PEN/Faulkner award)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폴 윌리엄 글리슨(Paul William Gleason)은 “보일의 소설은 레이몬드 카버(Raymond Carver)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플래너리 오코너(Flannery O'Connor)의 블랙 코미디(dark comedy)와 도덕적 심각성(moral seriousness), 그리고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의 재미있고 이상한 플롯(entertaining and strange plots)의 최상의 요소를 취했으며 미국인의 삶을 접근하기 쉽고, 파괴적이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평가한다(Gleason 10). 1995년에 출판된 보일의 소설 『또르티야 커튼』은 “미국이 1846년부터 시작한 멕시코와의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후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생긴 미국의 경계 위에 오늘날 2,000마일의 “또르티야 커튼”(Tortilla Curtain)이라는 장벽을 만들어 많은 멕시코인들의 이동을 막았던 것”을 연상시킨다(신명아 56). 더 나아가 이 소설은 이주노동자들의 고난과 애환을 그린 스타인벡의 대표작 『분노의 포도』에서 기억에 남는 제명인 즉,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오클라호마(Oklahoma)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오키들(Okies)의 불행을 조롱하는 말인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지 않겠지. 저렇게 더럽고 비참한 생활을 인간이 어떻게 버티겠어”(They ain't human. A human being wouldn't live like they do. A human being couldn't stand it to be so dirty and miserable.)로 첫 장을 시작한다. 이 제명은 스타인벡의 작품과 보일의 작품을 연결시키며, 이 작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받았던 부정적인 인식을 묘사하면서 유사한 이슈를 탐구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분노의 포도』가 출판된 지 78년이 지난 시점에, 보일의 『또르티야 커튼』은 정치적으로 스타인벡과 같은 입장을 취한 소설로써 이 두 작품을 연결시키며 사

회저항과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스타인벡의 관심을 다시 논의한다.

따라서 보일의 작품 의도는 『분노의 포도』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
 현 시점에서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는 새로운 시대의 틀 안에 이야기를 재배치하고 현대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서 부당함을 드러내고 이주민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했던 스타인벡의 의도를
 함께한다. 스타인벡이 노벨 수상 수락연설에서 주장했듯이, “작가의 오랜 세월
 에 걸친 임무는 바뀌지 않았다. 작가는 우리의 개선을 위해 우리의 어둡고 위험한
 꿈들을 빛으로 끌어올리며 우리의 많은 통탄할 결점들과 실패들을 드러낼 임무
 가 있다”(691). 여기에서 스타인벡은 보일이 수용하고 있는 사회저항 소설의 의
 의를 드높이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므로 보일은 전임자의 선례를 따르
 겠다는 그의 의도를 언급하며 스타인벡의 소설이 멈춘 곳에서 그의 소설을 이어
 서 시작한다. 톰 라핀(Tom Lappin)은 한 인터뷰에서 “이 책은 분명히 『분노의
 포도』에서 취한 것이다. 스타인벡은 사회적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의 나
 의 생각은 매우 다른 세상에서 그 작품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하
 여 1995년의 시점에서 1939년의 스타인벡의 정신을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Lappin 16).

보일이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스타인벡의 시각을 어떻게 새롭게 했는
 지는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보일은 스타인벡의 텍스트와 자신의 텍스트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인물들과 환경 및 주제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저항의 힘을
 표현한다. 그래서 스타인벡의 유산에 의존하며 보일은 소설을 의사소통과 저항
 의 형태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보일의
 『도르티야 커튼』에서 드러난 사회적 변화를 위한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저항의식
 을 통하여 사회저항 소설이 갖는 문제와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두 가족의 캘리포니아 드림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기억하고자하는 작가
 를 위한 글에서 “우리는 왜 태어나야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의 땅은 무엇인가?”(161)라고 말하며 비교를 구축하고 평행선을 긋는 효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보일의 『포르티야 커튼』은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와 비교를 시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저항 소설로서 『분노의 포도』는 그 장르 내에서 다른 고전작품들과 비교가 되어왔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토마스 C. 포스터(Thomas C. Foster)는 『분노의 포도』가 “미국적인 『전쟁과 평화』(*War and Peace*)이고 미국적인 『미들마치』(*Middlemarch*)이자, 미국적인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196)라고 말한다.

인간의 고통과 대단히 파괴적인 가난의 결과, 굉장한 희망과 몰락한 꿈들, 힘 있는 자들의 착취, 돈 많은 재벌들이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항상 이기는 조작된 게임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작품들이 있다. . . . 그러나 스타인벡이 『분노의 포도』에서 행한 것처럼, 주변 환경에 사로잡혀 캘리포니아의 거짓된 약속에 속는 오키들의 고통을 그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느끼지 못하게 한다.

There are other works that can bring us into direct contact with human misery, with the devastating effects of poverty and dashed hopes and ruined dreams, with exploitation by the powerful, with the rigged game where moneyed interests always win because they hold the cards. . . . But nothing makes us feel the pain of the Okies, trapped by circumstance and tricked by false promises of a Golden West, the way John Steinbeck does in *The Grapes of Wrath*. (Foster 196)

보일은 스타인벡의 서사에 자신의 소설을 뿌리를 내리며, 전통적인 구성방식과 혁신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저항의식을 창조한다. 쿤데라는 “모든 소설가들에게 있어서 비교에 대한 열정은 어떤 공기나 공간 그리고 휴식의 장을 위한 희망이다. 즉 새로운 형식을 위한 희망”이 있지만 형식의 동일성 뒤에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다”(162)고 설명한다. 그래서 보일은 환멸과 차별과 인간 갈등에 대한 자신의 소설을 만들기 위하여 스타인벡을 다시 생각한다.

1930년대의 세상이 그리 진보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보

일의 교환적인 의도는 불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타인벡이 『분노의 포도』에서 상세히 알린 부당성들이 현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공황의 산물이 아니다. 보일은 사람들의 전체 문화에 대한 편견과 학대가 오늘날의 관심임을 드러내면서 스타인벡의 “오키들”을 캘리포니아의 현재의 이주 노동자들과 비교한다. 하지만 몇몇 비평가들은 이 소설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 인정하지 않는다. 스콧 스펜서(Scott Spencer)는 “바이킹 출판사는 어떻게 든 자기네 수중에 또 다른 『분노의 포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1)고 주장한다. 또한 제인 번바움(Jane Birnbaum)은 “『포르티야 커튼』의 서평용 증정본의 뒤를 이어, 광고문은 그것을 1900년대를 위한 『분노의 포도』라고 부른다. 왜 스타인벡을 도용하는가? 『분노의 포도』는 절대 차용된 것이 아니라 비싼 댓가를 치르고 인정받은 것”(2)이라며 스타인벡의 소설은 중요도가 대단하기에 다시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두 소설에 대한 바이킹 출판사의 비교를 조롱한다. 비평가들은 『분노의 포도』가 보일이 성취하지 못하는 기준점이며, 『포르티야 커튼』은 스타인벡의 걸작의 예술적 기교와 힘에 비해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보일의 소설을 평하고 있다. 스타인벡만큼이나 작가로서 유능하지 않다는 평이나 보일의 미학을 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평가들은 『분노의 포도』의 조드 일가(the Joads)와 이주민들의 이야기들을 보일의 소설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보일의 소설은 린콘 일가(the Rincons)가 철저히 파괴된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을 대표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의 밀입국 불법 노동자들의 삶을 비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분노의 포도』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조드 일가의 몰락은 식량과 일거리 그리고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집을 떠나야만 했던 황진지대의 전체 미국인들의 경험을 대변한다. 실업의 공포와 가난 그리고 굶주림의 비인간적인 삶의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된다.

반세기가 지난 현재, 보일의 소설은 역사적으로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적절하게 이 이주민들의 서사를 다시 논의한다. 1995년 『포르티야 커튼』의 출판 이래로, 엄청난 수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왔다. 지에 중(Jie Zong)과 잔 바탈로바(Jeanne Batalova)에 따르면, “2013년에는 역사적으로 이민에 기반을 둔 한 나라의 최고 수준인 대략 4,130

만 명의 이주민들이 미국에 살았다”(1). 이들 중에 “멕시코 태생의 이주민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을 형성하며 대략 2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3). 게다가 모든 이주민들 중 상당 부분이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종과 바탈로바는 지난 5년간 “2011년 1월에 1,150만 명에 비해 2012년 1월 현재 미국에는 1,140만 명의 불법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음”(3)을 보여주며 미국 국토 안보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이 이야기는 1,140만 명의 불법 이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기 때문에(대략 28%) 이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에만 해당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불법 이주자들의 2/3”가 사는 94개 카운티들 중에 첫 번째 순위가 되었다(Zong and Batalova 13).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일거리와 생계 수단을 찾고 있는 현재 불법 이주자들은 그들 이전에 왔던 오키들과 유사하다. 윌리엄 랭구제(William Langwiesche)는 현대 이주민들의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그들이 보다 더 안전한 땅에 이르게 되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장의 창고와 나무 조각으로 만든 판잣집에서 살게 되며, 캘리포니아에서 어려운 삶을 꾸려 나가게 된다. 하급계층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지금 미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138)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스타인벡처럼 보일은 이 이주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폭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저항 소설을 받아들인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은 스타인벡과 보일의 소설에서 계속 나타난다. 예를 들어 “소작인들은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다. 우리더러 어찌라는 거죠? 소작료를 더 낼 수는 없어요. 지금도 굶다시피 하니깐. 아이들은 항상 배를 곯고 있어요. 입을 옷도 없습시다. 찢어진 누더기뿐이에요”(33)와 같은 『분노의 포도』의 많은 구절들은 유희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필사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오클라호마의 사람들을 묘사한다. 이후에 조드 일가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노동 조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절망감에 빠진다.

복숭아가 익었을 때는 2주일 동안 3,000명이 필요해요. 인부들을 구하지 못하면 복숭아가 썩어 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방에 전단지

를 뿌려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3,000명인데, 실제로는 6,000명이 몰려오죠. 과수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품샐으로 사람들을 골라 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는 품샐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Takes three thousand' men for two weeks when them peaches is ripe. Got to have 'em or them peaches'll rot. So what do they do? They send out han'bills all over hell. They need three thousand', an' they get six thousand'. They get them men for what they wanta pay. If ya don't wanta take what they pay, goddamn it, they's a thousand' men waitin' for your job. (*Wrath* 46)

마찬가지로, 『뜨르티야 커튼』의 주요 구절들은 『분노의 포도』를 너무 유사하게 반복하고 있어 그것은 거의 스타인벡이 쓴 것처럼 보인다.

이후에, 캔디도는 2백 명의 다른 사람들과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 . . 이야기는 암울했다. . . . 일이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부에서 올라왔다. 만약 6년 전에 그들 모두를 위한 일거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모든 일거리에는 20명이 있어서 사장들은 그것을 알아 보수를 절반으로 깎았다. 남자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도 굶주리고 있었다. 그들은 일, 어떤 종류의 일이건 할 것이고 사장이 주는 것을 받아 무릎을 꿇고 그 보수에 감사할 것이다.

Later, Candido stood on the street corner with two hundred other men. . . . The talk was grim. . . . There was no work. Too many had come up from the South, and if there was work for them all six years ago, now there were twenty men for every job and the bosses knew it and cut the wage by half. Men were starving. Their wives and children were starving. They'd do anything for work, any kind of work, and they'd take what the boss was paying and get down on their knees and thank him for it. (*Tortillia* 209)

캔디도 린콘(Candido Rincon)은 그보다 앞선 조드 일가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드림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캘리포니아의 “약속의 땅”에서의 기회 보장이 하나의 웃음거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분노의 포도』에서

캘리포니아 드림은 조드 일가와 그들의 동료 이주민들을 애타게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캘리포니아로 가면 일자리도 있고, 추운 겨울도 없습니다. 게다가 손만 뻗으면 오렌지를 딸 수 있죠. 그리로 가보지 그러세요?”(34)라고 말했던 지주의 대리인들에게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조드 일가가 그 꿈을 믿고 떠날 준비를 할 때, 파(Pa)는 “우린 여기서는 고생이 많았지. 물론 거기서는 모든 게 다를 거다. 일자리도 많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작고 하얀 집들이 있고, 오렌지가 자라고”(109)라고 말하지만 풍성한 음식과 적당한 주거지와 하루의 정직한 일거리에 대한 그 꿈의 현실은 1930년대나 현재에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르지 않다.

『포르티야 커튼』에서 캔디도와 아메리카(America Rincon) 부부는 조드 일가처럼 운택하게 될 생활을 마음속에 그리며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다. 아메리카는 “당신은 지금 내가 망고나 아니면 오렌지로 무얼 할지 알아요?”(28)하며 신선한 과일을 먹을 꿈을 꾸다. 캔디도는 자동차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는 그를 대신하여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상추나 . . . 아마도 과일도” 딸 거라고 말하지만, 캔디도는 “상추? 과일? 여긴 베이커즈필드(Bakersfield)가 아니야, 이곳은 L.A.라구. 여긴 과일이 없어. 목화도, 그 어느 것도 없단 말이야”(28)라고 응수한다. 또한 아메리카는 “난 저 집들 중에 산 냄새가 나는 원목으로 만들어진, 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으며 화초를 키우거나 닭들을 기를 수 있는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저 하얀 집을 갖고 싶어. 그걸 당신이 나한테 약속한 거 아냐?”(28-29)라며 말대꾸한다. 이 모습은 5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의 집을 갖고자 하는 아메리카의 꿈을 갖던 마 조드(Ma Joad)를 연상시킨다.

『분노의 포도』는 이주민들의 여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혼란과 불확실한 상태로 끝을 맺는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타인벡의 자연적인 요소들처럼 현재의 이주민들은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일의 소설은 절망의 이미지와 황량함의 분위기로 시작한다. 스타인벡의 작품이 조드 일가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상세히 알리고 있지만, 가뭄이나 홍수와 같이 현재 당면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요인들이 있다. 흙먼지와 비가 이주민들의 상황을 어렵게 하듯이 혼돈된 자연은 운명론적인 힘을 갖는다. 스타인벡

의 조드 일가처럼, 보일의 린콘 일가는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야수적인 자연의 힘에 직면하게 된다. 자연재해가 불행하게도 부당한 사회 질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돈된 자연에 대한 묘사는 두 소설에서 사회 저항의 주제와 연관성을 보여준다. 즉,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은 부유층의 손에 힘없는 하층계층을 더 굴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정적인 안정과 보장을 누리고 있는 부유층에게 무기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보일은 두 인물의 자동차 사고 이야기를 통하여 혼돈된 자연의 묘사를 현대화한다. 자연과 혼돈은 “반대 세력의 충돌”(the collision of opposing forces)(3)로 자동차 사고를 설명하는 보일의 첫 문장에서 교차한다. 이러한 충돌이 문자 그대로 자동차의 범퍼와 사람의 몸을 나타내지만, “반대 세력”이라는 구절은 두 소설에서 묘사된 좀 더 원시적인 자연의 힘의 이미지를 환기시켜준다. 『분노의 포도』에서 이주민들은 적당한 주거지가 없기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 흙먼지와 비라는 “반대 세력”에 더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보일은 “그곳에는 그저 먼지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nothing there but dust and more dust)(5)고 말하며 사고 현장의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 여기서 보일은 그의 등장인물들이 마주치는 재해에 내재된 자연의 힘을 묘사한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은 자연과 혼돈의 강렬한 혼합으로 강조된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얼굴이 흉하게 된 캔디도의 모습은 『분노의 포도』의 후반 장면에서 케이시(Casy) 목사를 죽인 사람을 보복할 때의 싸움에서 상처입은 탐 조드(Tom Joad)의 얼굴 모습과 유사하다. “그는 감각이 없는 얼굴과 코를 만져 보았다. 코뼈가 부서져 있었고, 턱에서는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그는 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얼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387). 마찬가지로 캔디도의 자동차 사고 역시 그의 얼굴을 흉하게 망가뜨린다. “심하게 굳어진 상처는 그의 턱에서부터 머리선, 부어 눈이 감긴 왼쪽 눈 그리고 코에 이른다”(24). 그래서 상처 입은 두 남자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 알아보는 것을 피하려고 톰은 캔디도가 매일 경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숨어 지낸다. 사실상, 얼굴이 훼손된 이후로 톰도 캔디도 어느 누구도 그들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없다. 마(Ma)가 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 보았을 때, 톰은 “예,.. 전 곤경에 처했어요. 일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숨어 지내야 해요”(389)라고 대답한다. 마찬가지로 보일은 “어떻든 그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당분간이 아니야. 그는 가까스로 설 수 있지. 그러나 만약 그가 일할 수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25)라고 캔디도에 대하여 말한다.

“썩은 과일처럼 상처입고 부어오른” 캔디도의 얼굴에 대한 보일의 설명은 톰에 대한 스타인벡의 설명을 연상시킨다. 그레고리 마이어슨(Gregory Meyerson)은 “『또르티야 커튼』이 『분노의 포도』에 대한 암시로 가득 차 있고, 썩은 과일과 같은 캔디도 얼굴에 대한 언급은 다른 이야기이다. 두 소설 사이의 관계를 특징짓는 많은 아이러니들 중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하는 과수원이라는 공간은 국토 도시화(suburbanization)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불도저로 밀어 버렸다”(85)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두 인물의 얼굴 상처는 강력한 시스템들이 무력한 사람들을 파괴하는 더 큰 사회적 패턴을 암시한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격하면, 이 시스템들은 이 사람들을 불구로 만든다.

의미심장하게도 톰의 얼굴 손상이 『분노의 포도』의 후반부에 일어나는 반면에 캔디도의 얼굴 손상은 『또르티야 커튼』의 초반부에 일어난다. 내러티브의 구조에 있어서 캔디도는 톰이 떠나는 시점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 이후에 이미 있는 많은 위험스러운 여행으로 캔디도는 절망적인 빈곤과 배신의 세상 속에 발을 디디게 된다. 비록 톰과 캔디도가 똑같은 캐릭터는 아니지만, 캔디도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결코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톰의 연속이다. 따라서 보일은 독자들에게 세상이 정말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분노의 포도』에서 흙먼지가 생태학적 위기를 상징하는 반면에, 『또르티야 커튼』에서의 흙먼지는 한계생존(subsistence living) 즉, 가장자리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일은 스타인벡의 흙먼지의 이미지를 그의 소설 전체에 걸쳐 비극적인 장면에 끼워 넣는다. 예를 들어 캔디도의 부인 아메리카가 협곡에서 강간당할 때, 그녀를 범한 사람은 손을 뺀어 그녀를 잡아 “캔디도와 충돌한 자동차처럼 그녀가 저항할 수 없는 힘”(141)을 그녀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녀를 땅으로 끌어당겨 “어떤 미친 제빵사가 오솔길에 흩뿌려놓은 밀가루와 같은 흙먼지”(141) 속에 넘어뜨린다. 강간 장면이 전개되면서, 흙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이 있다. 아메리카의 폭행범은 “그녀의 얼굴을 밀가루 같은 흙먼지” 속에 억지로 밀어 넣고 얼굴을 땅바닥에 내려놓자 그녀는 “그 흙먼지”를 들어 마신다(141). 그 다음에

보일은 다른 종류의 “흙먼지 지대”를 만든다. 비록 아메리카의 고통이 경제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그녀 개인의 “흙먼지 지대”는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

보일은 이주민들의 엄청나게 파괴적인 비극과 백인 등장인물들의 생활 속에서 단지 불편한 사건을 대조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러티브 안에서 평행선을 그린다. 예를 들어 보일은 아메리카의 강간사건을 백인 등장인물의 자동차 절도와 연결시킨다. 두 명의 남자가 아메리카를 강간하고 그녀의 옷을 찢어 벌거벗겨진 채로 쓰레기더미에 내버린 직후, 보일은 그의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한 백인 등장인물의 반응을 묘사한다. “그는 강간당하고 빼앗김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146). 더욱이 그 인물은 이 사건의 결과로 그의 삶을 잠식하는 “무능함과 무력감”(the sense of futility and powerlessness)(146)을 겪는다. 마이어슨은 강간과 차량 탈취간의 보일의 아이러니한 비교에 대해 “이러한 대조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과 치명적인 것의 구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된 것”(74)이라고 말한다.

만약 아메리카가 그녀의 소리 없는 고통과 인내 안에서 마 조드를 암시하는 것 같다면, 그녀는 또한 로즈 샤론(Rose of Sharon)을 연상하게 하는 인물로 보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여자인 아메리카와 로즈 샤론은 모두 임신 중이었다. 이런 이유로 두 여자는 가능한 변화의 씨앗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일은 “그녀가 아메리카이고, 미래의 희망이고, 그의 부인이며 그의 사랑이고, 그녀의 내면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지금도 형체를 갖추고 있는 아들, 그의 첫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24)이라고 말한다. 비록 이 여자들 그들의 임신으로 귀감이 된 것처럼 신비스러운 여성의 지식과 통찰력을 부여받고 있다 하더라도, 굶주림은 항상 그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들의 부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한다. 그러므로 희망과 새로운 삶을 위한 전통적인 상징으로써 임신은 남자들이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신뢰할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된다.

아메리카와 로즈 샤론의 이야기들이 홍수기간 동안에 비극적으로 죽게 됨에 따라 보일의 작품은 다시 스타인벡의 작품과 나란히 한다. 스타인벡처럼, 보일은 정화와 세례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속죄로서 물의 상징에 의문을 갖는다. 등장인물들이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비는 『분노의 포도』와 『뜨르티야 커튼』의

두 결말 부분에서 홍수가 된다. 가족들의 집들과 자동차 그리고 일거리가 완전히 물로 파괴됨에 따라 그들의 미래 세대들도 또한 그렇게 파괴된다. 이 두 소설에서 아기들은 죽는다. “신문지 위에 퍼렇고 쭈글쭈글한 작은 미라 같은”(a blue shriveled little mummy)(444) 정말 살아있지 않고, 성별도 알 수도 없고, 이름도 붙이지 않은 로즈 샤론의 아기는 사산된다. 삼촌 존(Uncle John)이 아기를 물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그는 아기를 땅에 묻는 대신에 임시로 만든 관인 사과 상자 안에 아기를 넣은 다음에 마구 쏟아내는 물줄기에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는 시체에 목적을 부여한다.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거리로 흘러가서 거기서 썩어 사람들이 알게 해. 그게 네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야. . . . 이제 가거라. 거리로.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가 깨닫게 될지 모르지”(447).

『포트리야 커튼』의 끝부분에서 보일은 공허함과 유사한 말을 한다. 비록 아메리카의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지만, 강간의 결과로 아기는 눈이 먼 상태로 태어난다. 아이러니컬하게 아기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원조”나 “도움”을 의미하는 소코로(Socorro)이다. 소코로는 그녀의 가정을 파괴한 끔찍한 장마 때문에 죽게 된다. 캔디도는 “아메리카와 아기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는 가느다란 애절한 저음으로 올라오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뿌리 채 뽑힌 나무들의 소리와 나무 아래에서 흔들리는 바위의 악몽 같은 소리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353)고 참혹한 장면을 설명하며 아기의 죽음을 한탄한다. 두 소설 모두 익사한 아기들로 이야기가 끝나며 보일은 자신과 스타인벡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의 상징이 사라졌을 때, 그 메시지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마이어슨은 『포트리야 커튼』에서 “삼촌 존이 로즈 샤론의 죽은 아기를 강에 풀어놓는 것과 특히 그의 분노한 말을 환기시키는 강에서 아기의 익사는 누가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해준다”(90)고 주장한다. 이것은 여성의 육아능력과 모성애가 역경을 극복할 만큼 다소 강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음식도 없고 일도 없고 품위가 없다면, 미래 세대는 고통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저항 소설의 필요성은 1995년에 살고 있는 보일에게는 1939년에 살았던 스타인벡만큼이나 절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설의 결말은 구원의 섬광을 제공한다. 『분노의 포도』에서 로즈 샤론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피난처로 찾았던 헛간에서 사산으로 부어오른 자신의

젓가슴을 허락하여 굶어 죽어가는 남자를 살린다(455). 절실한 필요와 비참한 미래의 전망 속에서 이 장면에는 일종의 환희가 있다. 같은 방식으로 보일의 캔디도는 『포티티야 커튼』의 마지막 대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다.

소코로의 죽음을 알게 된 지 얼마 후에, 캔디도는 자신의 비참함을 많이 부추겼던 물에 빠진 딜레이니 모스배처(Delaney Mossbacher)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캔디도가 “검은 물결의 소용돌이 밖으로 밀려 올라온 하얀 얼굴과 기와를 잡고 있는 하얀 손”(355)을 보았을 때, 그는 물 밖으로 그를 끄집어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캔디도가 복수하는 사람이기 보다 구조자가 됨에 따라, 이 장면에는 승리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은 구원하는 순간을 아이러니컬한 전개로 복잡하게 만든다. 샤론 로즈가 자신의 가슴을 낫선 이에게 제공하는 반면에, 캔디도는 적으로 알고 있는 딜레이니에게 생명선을 제공한다. 캐시 냅(Kathy Knapp)은 “두 남자는 낫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사실 딜레이니가 캔디도를 ‘그들 중 한명’으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두 남자는 기묘하게 친밀해졌으며, 평행한 충돌 과정에서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132)고 믿는다. 스타인벡과 보일의 두 소설이 맹렬한 속도로 비극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의 구속의 결말은 매우 중요하다. 샤론 로즈와 캔디도 둘 다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고 그들 아기의 죽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모두는 회복력이 있으며 그들 자신의 비극적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일은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132)고 본다.

이러한 구원의 주제는 많은 사회 저항 소설들의 중심적인 특징이다. 호워드 진(Howard Zinn)은 “저항문학은 독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517)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시인인 E. 에셀버트 밀러(E. Ethelbert Miller)는 “권력이 사회로 이동할 때, 도전적인 말은 항상 나오게 마련이지만 왜 우리는 사랑과 비폭력 또는 평화를 위해 싸우는가? 아마도 이것은 모순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언제나 증오와의 전쟁 중에 있다”(101)고 말한다. 그러므로 조드 일가와 린콘 일가가 여전히 빈곤과 고통 속에 빠져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져라”라는 진의 명령어조는 두 서사의 마지막 말을 구성한다.

III. 모스배처 일가의 과장된 특권

사회 저항 소설의 또 다른 특징은 대다수 사람들의 굴욕과 압박에 대한 묘사에 있다. 예를 들어, 스타인백의 조드 일가 이야기는 폭력적인 경찰, 지역 주민들, 고용주 및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동원된 이주민 강탈의 배경을 묘사한다. 이러한 부당하고 냉정한 사회의 전통적인 맥락에서, 보일은 백인의 특권과 대비되는 린콘 일가의 역경을 묘사한다. 딜레이니와 그의 부인 키라 모스배처(Kyra Mossbacher)는 캔디도와 아메리카에게 대응 관계에 있는 백인들이다. 보일을 연구한 많은 비평가들은 그의 진부하고 심지어 회화적인 백인 특권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결합이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스콧 스펜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우리는 그가 그런 경멸감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따르도록 요구받는가?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정말 좋아하기 힘든 일이다. 경멸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유혹하는 위험한 감정이다. 경멸은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야유하고, 만지기보다는 오히려 찌르도록 하게 한다. 그의 유명한 재능에도 불구하고, T. 코라게션 보일은 우리에게 알려진 소설가들 중에 가장 경멸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Why are we being asked to follow the fates of characters for whom he clearly feels such contempt? Not surprisingly, this is ultimately off-putting. Contempt is a dangerous emotion, luring us into believing that we understand more than we do. Contempt causes us to jeer rather than speak, to poke at rather than touch. Despite his celebrated gifts, T. Coraghessan Boyle may be the most contemptuous of our well-known novelists. (Spencer 3)

그러나 분명히 보일의 소설은 의도적으로 그의 독자들의 경멸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스배처 일가의 인물들은 독자들의 반감을 자아내도록 의도된 기괴하게 과장된 특권을 행사한다.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일의 저항 소설이 더 공정한 사회질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모스배처 일가는 경제적 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서도 특권을 가진 백인 대다수를

대표하며 그것 때문에 린콘 일가와 대조를 이룬다. 그들이 옳은 일을 기꺼이 하려 할지라도, 이 가족 대부분은 이기심과 게으름 또는 자만심에 자주 굴복한다. 히더 J. 히스(Heather J. Hicks)는 “그들의 성(性)인 모스배치는 분명하게 그들을 ‘mossbacks’ 즉, 세상에 대하여 시대에 뒤지거나 반동분자의 생각을 가진 개인인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로 표시한다”(46)고 말한다. 따라서 이 이름은 사회적 저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 특권층과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글에서 보일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필요성을 명백하게 한다. 예를 들어 딜레이니는 자신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한 도보여행이나 수풀이 뒤덮인 협곡에서 명상의 밤을 즐기는 “자유주의 휴머니스트”(liberal humanist)(3)로 설명되는 천부적인 작가이다. 자연에 대한 그의 말에서 그는 “나는 미리 정해진 야영지에서가 아니라 오래된 군용 담요와 발포 패드보다 나와 땅 사이에 더 정교한 것이 없는 산타이네즈 협곡의 길(Santa Ynez Canyon Trail)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77)고 자랑스레 말한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의 추종자인 딜레이니는 신중하게 자연과 대화를 위해 숲으로 가지만, 그는 그곳에서 매일 밤을 보내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똑같은 계곡에 사는 캔디도의 경우와는 현저히 다르게 그의 경험의 아이러니를 깨닫지 못한다.

특권층으로 태어나 가난을 모르는 딜레이니와 키라는 캔디도와 아메리카가 열망하는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 모두를 당연시 여긴다. 여러 장면에서 두 부부들의 경험은 가난과 부의 대조의 아이러니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2장에서 아메리카가 오렌지 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3장은 딜레이니가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주스 만드는 일이 그가 매일 아침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했던 것이다”(Boyle 3). 아메리카는 자신을 위해 캔디도가 조그마한 집을 사줄 수 없는 것을 비난하는 반면에, 딜레이니와 키라는 아이러니컬하게 나바호족 재질로 장식된 하얀 오두막집인 “아로요 블랑코”(Arroyo Blanco) 지역에 큰 문이 있는 큰 집에 산다(30). 더욱이 자신의 그릇된 통찰력으로 인해 딜레이니는 위험할 정도로 무지한 존재가 된다. 자연에 관한 그의 칼럼에서 그는 “당신이 세상의 나머지와 굶주림과 상실의 세상 그리고 꾸준히 끊임없는 환경과 피와 당신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지만, 자신을 분

리시키는 것은 정확하게 그가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한 것(Boyle 32)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 사고 장면에서, 딜레이니는 다른 운전자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에 충격을 받는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경험의 주변에 그들을 있게 하며 고집스럽게 사람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타자”를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가 자동차 사고의 결과를 비밀로 할 수 밖에 없을 때, 딜레이니는 그가 한때 혐오했던 분노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빠르게 변한다. 즉, 도덕적인 퇴화가 일어난다. 캔디도의 상처 입은 몸을 쳐다보면서 딜레이니는 그를 단지 정신적인 거리에서만 보았던 즉 패스트 푸드점의 직원이나 정원사 그리고 일일 노동자와 같은 다른 멕시코 남자들의 혼합으로만 볼 수만 있다. 그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 같은 노동자들을 정신적으로 혼합하면서 그는 “그의 죄책감이 분노와 격분으로 변하는”(his guilt turn to anger, to outrage)(11) 것을 느낀다. 그가 부분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이 경솔하고 부당하다고 느끼지만, 그는 냉정하게 캔디도의 절박한 곤경을 빠르게 정당화한다.

딜레이니가 캔디도에게 보상금으로 딱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준 그의 행위는 인종차별 행위로 그의 빠른 전략의 전조가 된다. 캐시 녀은 “캔디도에 대한 딜레이니의 뻔뻔하고 잔인한 목살과 그의 합법적 상태로 그의 희생자의 인종을 결합하는 것은 자주 숨겨진다. 딜레이니는 희생자가 백인이 아니라 멕시코 인이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극히 말 그대로 캔디도를 배제한다”(124)고 말한다.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딜레이니의 인종차별은 심화된다. 야생 코요테가 그들의 작은 하얀 개를 잡아 먹었을 때, 모스배처 일가는 미친다. 자연주의자인 딜레이니조차 이 사건을 계곡에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환경적인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멕시코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는 않았다. 만약 그 바보들이 코요테를 위해 음식을 밖에 둔 것이 아니었다면”(39). 딜레이니가 라틴계 상대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수록, 그는 좀 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의 적대자들처럼, 멕시코 인들에 대한 딜레이니의 두려움과 그들을 동료 인간으로 보기를 꺼려하는 것과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의 결여는 궁극적으로 그의 삶을 흐트러지게 한다.

처음에는 딜레이니는 그들의 마을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벽을 세우자는

마을사람들의 제안에 냉정하게 반대한다. 이 문제를 토의하는 지역사회 모임에서 그는 이웃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투표를 방해하며 “우리는 이주민들의 나라지(we’re a nation of immigrants).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둘 중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있을 수 없을 것이야”(101)라며 이주민들의 곤경에 그럴듯한 공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이후에 같은 장에서 딜레이니가 협곡을 걷고 있을 때, 그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몇 사람을 보고 격분한다. “이 사람들과 그들의 쓰레기 더미를 여기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었고, 슬럼가나 판자촌 등 그들이 튀러 부르던 간에 그들이 온 곳이 어디든지 간에 다시 되돌아가도록 재촉하는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116-17). 딜레이니는 이지적으로는 벽의 개념을 폄하하는 반면, 실제적인 면에서 그 자신과 가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그의 우선순위는 바뀐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 있는 이웃들과의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벽을 세우는 것을 지지하기로 결정한다. 심지어 이 벽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거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아이러니는 그를 자유롭게 한다. 소설 전체에 걸쳐서 딜레이니의 도덕적 붕괴는 사회적 수락과 재정적인 면과 결혼생활의 안전 그리고 그가 신중하게 꾸며낸 삶의 스타일을 위한 그의 욕망에서 기인한다.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건전한 결정을 할 기회를 직면할 때, 딜레이니는 자신의 편의에 원칙을 두고 저항이 가장 작은 길을 선택한다.

몇몇 비평가들은 이 이야기가 보통 백인들의 삶을 너무 직접적으로 묘사했다고 딜레이니와 키타에 대한 보일의 부정적인 묘사를 폄하한다. 국경에서 코요테에 대한 이야기에 불안을 느끼며 밤에 닥칠 두려운 추방과 미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굶주림은 보일의 소설의 기저를 이루는 현대의 현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을 유발시킨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며 보통은 동정심 있는 자유주의자들조차도 그러한 고통에 등을 돌리도록 유혹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를 희망하며 스타인벡과 보일은 사람들의 고통을 면밀히 관찰하고 공감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들은 모스배처 일가에 대한 보일의 묘사가 신랄하고 무언가를 연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톰 라핀(Tom Lappin)은 “보일의 내러티브는 잘사는 백인 공동체의 인종차별적인 편집증과 이민자들의 무력감과

절망감을 대조한다. 그것은 보일이 이전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논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사회적으로 반항을 일으키는 일”(16)이라고 주장한다. 로버트 머레이 데이비스(Robert Murray Davis)는 스타인벡의 이야기에서 유사한 접근을 발견한다.

논객으로서 그리고 소설가로서 스타인벡의 주요한 업적 중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동안 용인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 살았던 견딜 수 없는 삶의 그림을 그는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그들을 보는 어떠한 대안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쾌한 상태에서 눈길을 돌리는 동안 우리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한다.

One of Steinbeck's major accomplishments as a polemicist and as a novelist is that he presents us with a picture of life we could not endure, lived by people we could not tolerate for a minute in everyday life, and not only gives us no alternative to seeing them as human but makes us turn against our own kind and ourselves for looking away in distaste. (Davis 167)

그리고 보일의 소설에 대하여, 패티 하티건(Patti Hartigan)은 “외과용 나이프의 정확성으로 보일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좋은 의미의 자유주의자가 차별과 증오를 배우는 냉담한 과정을 노출시킨다”고 관찰한다. 책의 출판의도에 대한 보일의 요약을 인용하면서 그녀는 “그 책은 우화적 입장을 취하며, 각 개인은 개개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한다”(25)고 진술한다. 그래서 이러한 비평가들은 스타인벡의 저항을 상기시키는 것과 자신의 시대에서 그것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보일의 이중적인 임무를 강조한다.

IV. 맺는 말

사회저항 소설들은 폭넓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타인벡과 보일 모두

는 부정적인 반응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자신의 저작권 대리인 엘리자베스 오티스(Elizabeth Otis)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타인벡은 “이것은 인기 있는 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은 양의 출판을 하는 것 말고는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손해일 것이며 만약 더 많은 주문이 있다면 더 많이 출판할 것”(SLL 161-162)이라고 썼다. 같은 달에 그는 “파시스트 군중은 이 책이 혁명적이기 때문에 이 책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것이며, 그들은 공산주의 입장에서 그 책을 보려고 할 것이다”(SLL 163)고 코비치(Covici)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의 소설이 거부될지도 모른다는 예측에 실수가 있었지만, 스타인벡은 수많은 부정적인 평판을 받았다. 피터 먼로 잭(Peter Monro Jack)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 격렬한 소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2)고 경고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다루었다. 잭슨 J. 벤슨(Jackson J. Benson)은 특히 농민연합(the Associated Farmers)으로부터 “많은 욕과 많은 히스테리성의 말들과 유언비어들이 있었다”(420)고 말한다. 수잔 실링로우(Susan Shillinglaw)의 그의 저서에서 “개인주의와 자립에 대한 집단주의의 소설의 시각을 매도하는 반대의견의 목소리를 탐색하며, 이렇게 흠잡은 사람들은 “톰 조드의 이상주의를 매우 불편해했다”(195)고 설명한다.

스타인벡처럼, 보일도 또한 『뜨르티야 커튼』의 출판 이후에 불만을 품은 독자층을 예측했다. “나는 내가 너무 멕시코 인들에게 동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보수파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또한 그 소설이 진보적인 요소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지 내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권리박탈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보일은 “톨스토이는 어떤 소작농들을 알았지만, 그 자신은 소작농이 아니었다”(B25)고 말하며 이러한 불평들을 빠르고 냉소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그의 작품이 그의 초기 작품들에 비해 위트와 블랙 코미디가 결여되었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일은 “자신의 인종차별주의를 비웃는 것은 조금 더 어렵다”(Lappin 16)고 항변한다.

사회저항 소설의 최종적인 속성은 그것의 애매모호하고 미해결의 결론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부족함이 있기에, 『분노의 포도』와 『뜨르티야 커튼』의 결말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젖을

물리는 로즈 사론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캔디도의 적극적인 행위도 이 인물들의 삶에 있어서 이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드러나지 않는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의 불만을 예상하며 스타인벡은 코비치에게 “나는 그 책들이 강하고 심도 있는 클라이맥스를 이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암시를 예외로 하지 않고 독자는 그것에 암시를 가져와야 한다. 내가 독자들을 현실에 참여하게끔 노력하는 내내, 그가 그것에서 취한 것은 완전히 자신의 깊이나 공허함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SL 167)고 편지를 썼다. 보일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지? 5분 뒤에는? 일주일 후에는? 세련된 작품은 작품을 보기 좋게 펼쳐놓는 대신에 독자에게 개방되어있다”(“One Book, One City”)고 질문하며 그의 독자들에게 비슷한 책임을 묻는다.

스타인벡의 모호한 결말을 반영하면서, 보일은 자신의 사회 저항 의식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결말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있고 땅은 아직도 홍수로 범람하고 있으며 여전히 식량이 없다. 그들을 향한 증오는 잔인하고 현실적이다.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다. 쉬운 답변들도, 잘 정돈된 결론들도 없다. 유일한 구원에 대한 시각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책임 역시 독자들에게 맡겨진다. 따라서 스타인벡과 보일은 각각 자신의 시대에 사회적 변화를 위한 호소로서 사회저항 소설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행했다고 본다.

인 용 문 헌

Shin, Myoung-Ash. “Culture, Literature: A Study of “Missed Encounter” between American Culture and Latin Culture and the Border Theory.” *Cross-Cultural Studies*. 25.0 (2011): 55-85.

[신명아. 「문학, 문화 : 미국문화와 라틴문화의 “어긋난 조우”와 탈경계성 연구: 테오도르 루스벨트와 호세 마르티, 그리고 1898년 미서 전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25.0 (2011): 55-85.]

Benson, Jackson J. *The True Adventures of John Steinbeck, Writer*. New York: Viking, 1984. Print.

- Birnbaum, Jane. "To Live and Discriminate in L.A.: It's Us versus Them, Natives versus Immigrants, Haves versus Have-Nots." *Los Angeles Times*. 24 Sept. 1995. Web. 11 Aug. 2014.
- Boyle, T. C. "One Book, One City." Sierra Madre, Calif. 20 Oct. 2005. Reading. _____ . *The Tortilla Curtain*. New York: Penguin, 1995. Print.
- Davis, Robert Murray. "The World of John Steinbeck's *Joads*." *The Critical Responses to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Edited by Barbara A. Heavilin. Westport, Conn.: Greenwood, 2000. 163 - 70. Print.
- Foster, Thomas C. *Twenty-Five Books That Shaped America*. New York: Harper, 2011. Print.
- Gleason, Paul William. *Understanding T.C. Boyle (Understanding Contemporary Literature)*.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9, p.10. Print.
- Hartigan, Patti. "A Literary Hooligan Grows Up but T. Coraghessan Boyle Knows His New Novel Will Make More Trouble." *Boston Globe*. 24 Sept. 1995: B25+. Print.
- Hicks, Heather J. "On Whiteness in T. Coraghessan Boyle's *The Tortilla Curtain*." *Critique* 45.1 (2003): 43 - 64. Print.
- Jack, Peter Monro. "John Steinbeck's New Novel Brims with Anger and Pity." *New York Times*. 16 Apr. 1939. Web. 6 Sept. 2014.
- Knapp, Kathy. "'Ain't No Friend of Mine': Immigration Policy, the Gated Community, and the Problem with the Disposable Worker in T. C. Boyle's *Tortilla Curtain*." *Atenea* 28.2 (2008): 121 - 34. Print.
- Kundera, Milan. *The Curtain: An Essay in Seven Parts*. Translated by Linda Asher. New York: HarperCollins, 2006. Print.
- Langwiesche, William. "Invisible Men." *New Yorker*. 23 Feb. 1998: 138 - 46. Print.
- Lappin, Tom. "Read an interview with TCB about the *Tortilla Curtain* in Text Mex." *The Scotsman*. 10 Nov. 1995: 16. Print.
- Meyerson, Gregory. "*Tortilla Curtain* and *The Ecology of Fear*." *A Contracorriente: A Journal on Social History and Literature in Latin America* 2.1 (2004): 67 - 91. Print.
- Miller, E. Ethelbert. "Wounded by Words." *Fightin' Words: 25 Years of Provocative Poetry and Prose*. Edited by Judith Cody, Kim McMillon, and Claire Ortalda. Oakland, Calif.: PEN Oakland Publications, 2014.101. Print.
- Shillinglaw, Susan. "California Answers *The Grapes of Wrath*." *The Critical Response to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Edited by Barbara A. Heavilin. Westport, Conn.: Greenwood, 2000. 183 - 99. Print.
- Spencer, Scott. "The Pilgrim of Topanga Creek." *New York Times*. 3 Sept. 1995. Web. 11 Aug. 2014.
- Steinbeck, Elaine, and Robert Wallsten, eds. *Steinbeck: A Life in Letters*. New York: Viking, 1975. Print.

- Steinbeck, John. *The Grapes of Wrath*. 1939. New York: Penguin, 1999. Print.
- _____. "Nobel Prize Acceptance Speech." *The Portable Steinbeck*. Edited by Pascal Covici, Jr. New York: Penguin, 1971. 690 - 92. Print.
- Zinn, Howard. Afterword. *American Protest Literature*. Edited by Zoe Trodd. Cambridge, Mass.: Harvard UP, 2006. 515 - 17. Print.
- Zong, Jie, and Jeanne Batalova. *Frequently Requested Statistics on Immigrants and Im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Migration Policy Institute. 26 Feb. 2015. 1-18. Web. 1 Aug. 2015.

황치복

주소: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감로 303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메일: edm64@jj.ac.kr

논문접수일: 2017. 12. 27 / 심사완료일: 2018. 01. 31 / 게재확정일: 2018. 02. 02